

에이즈는 불치병이 아니다

오명돈 / 서울대 의대 교수

에이즈가 이 세상에 알려진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병이 처음으로 알려질 당시에는 에이즈란 진단이 곧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이 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 원인바이러스가 밝혀지고(1983)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되었습니다(1985). 뿐만 아니라 에이즈바이러스 치료제인 지도부딘을 개발(1987)한 이래, 현재에는 15가지나 되는 치료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6년에는 3가지 또는 4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칵테일 요법'이 등장하면서 에이즈 치료에 획기적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칵테일 치료를 받은 에이즈 환자들은 병이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칵테일 치료로 환자의 혈 중에서 에이즈바이러스는 사라지고, 환자의 면역 기능은 회복됩니다. 이런 효과는 칵테일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70-80%에서 나타납니다. 그 결과 환자는 더 이상 아구창이나 폐렴과 같은 기회감염증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면역 기능이 회복된 환자는 폐렴 예방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바이러스 치료약을 끊으면 다시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끊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칵테일 치료를 하더라도 약물이 잘 침투할 수 없는 중추신경계, 생식기관, 세포내의 핵, 림프절은 에이즈바이러스의 은신처가 됩니다. 여기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는 약을 끊으면 증식하여 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약물 치료로 면역능력이 회복된 환자에게 에이즈 백신을 투여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백신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제는 약을 끊어도 바이러스가 다시 혈중으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가 성공을 거둘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에이즈는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으면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면역

기능이 회복되어 기회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약을 끊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도 혈압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생동안 약을 먹어야 합니다. 당뇨병도 평생동안 치료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불치의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에이즈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병입니다. A